

# 전체주의 국가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모형화 연구 : 최후의 인간과 베네수엘라

윤형호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 A modeling study of the process of change to a totalitarian state : The Last Man and Venezuela

Hyeongho Yoon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Konyang University

**요약** 후쿠야마가 1989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해 보고, 이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한 때 복지모범국가로 회자되다가 전체주의국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철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후쿠야마의 주장을 전제로 하나, 그가 가정하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니체가 주장하는 최후의 인간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서 민주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은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속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 대중, 전체주의자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주의가 제도화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전형적인 유사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 준다.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비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하면서도 “부자의 식”에 찌든 최후의 인간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설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전체주의 등 수많은 변수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Even after Fukuyama declared "The End of History" in 1989, the challenge to liberal democracy continues. Controversy about totalitarianism is constantly being rais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democratic countries and leaders, as well as the US-China war of supremacy. In this paper, I explored a hypothesis about the totalitarian process, and to explain this hypothesis, I analyzed the case of Venezuela, which was once referred to as a welfare model state. This paper presupposes Fukuyama's insistence on the universality of liberal democracy but considers the last man Nietzsche argues for the last man he assumes. Accordingly, the process of totalitarianism was viewed as a process in which totalitarianism was institutionalized and spread internationally through the linkage and interaction of the last fallen humans, the masses, and totalitarian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s.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Bol?var Revolution and Chavez show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typical quasi-totalism. Although the Venezuelan people preferred democracy, they remained the last man who had become a man of "rich consciousness." While investigating this hypothesis, it was confirmed that extensive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such as digital totalitarianism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followed.

**Keywords** : Last man, Mass, (Quasi-)Totalitarianism, Totalitarian, Venezuela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on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Hyeongho Yoon(Konyang University)

email: yhh1@hanmail.net

Received November 2, 2020

Revised November 23,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 1. 서론

## 1.1 문제제기

소련의 붕괴 직전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은 인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인가에 대한 논란을 던져 주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라는

비판들이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Strongman(독재자)으로 회자되면서 ‘차르와 황제, 술탄, 파라오 등’으로 불린다. 미국 전 국무장관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는 자신의 저서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미국 근대사 최초의 반민주주의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왜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전체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전체주의나 전체주의자들이라 불리면서 정체성의 논란을 빚고 있는 현상들이 왜 이렇게 빈번히 나타나는가? 중국 공산당이나 민주주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짧은 동유럽에서의 역민주화나 전체주의의 논란은 낫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한때 복지모범국가의 모델로서 회자되던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차베스(Hugo Chávez)의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사회주의 기치 아래 전체주의 정권으로 치닫으며 현재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서도 적절해 보인다.

## 1.2 연구주제, 방법 및 대상

본 논문에서는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에서 밝힌 역사철학적 관점과 국가 형성과 관련한 사회계약론의 논리와는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주체성을 상실하면서 전체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엿보고자 한다. 특히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과 함께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표현을 빌린 “최후의 인간”은 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이 “최후의 인간”으로서 갖는 정체성, ‘대중’과 ‘독재자’와 관련된 변수들에 의한 연계를 기반으로 가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볼리바르 혁명 하에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변화되

는 과정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Fig. 1. Study Design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이론적 논의, 가설의 모색,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로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독재적인 유사전체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이론적,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의 베네수엘라 사례연구는 UN의 정식 인권보고서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 수백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8~2019년에 걸친 조사를 바탕으로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제반 분석요소에 따라서 민주주의 정권이 유사전체주의화 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 관련 이론 연구

## 2.1 전체주의 체제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다양한 인간들을 마치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 조작하는 총체적 지배를 지향하는 체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주의란 이전에 존재했던 전제정치, 압제, 참주정치 등 다른 독재체제와 확연히 다른 정치형태라고 하였다. 독재란 정치적 반대자를 지향하나 전체주의는 이념에 규정된 객관적 적을 상정하고 강제수용소로 현실화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전체주의를 현대 정치에서의 좌파, 우파와 같은 사고의 극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자체의 부재, 즉 비자발성을 핵심이라고 보았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논란은 고대의 플라톤부터 제1, 2차 세계대전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념적, 역사

적, 그리고 경제적 관점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아렌트의 주장에 따라서 빌라(Dana Richard Villa)는 전체주의 체제가 갖는 특징으로 간단하게 보이는 해결책을 표어로 제시하면서 대중을 동원하고, 특수한 집단으로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치시킨다. 그리고 대중의 모든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유능한 비밀경찰을 운영하는 것이다[1]. 프리드리히(Carl Joachim Friedrich)는 전체주의 정부가 갖는 특징을 유일사상, 유일 합법 정당,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정치, 무력에 대한 독점, 문화 및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그리고 국가 계획에 의한 통제 경제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2]. 특히 빌라나 프리드리히의 주장의 이면에는 아렌트가 강조한 일반적인 독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대중의 폭민화나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고 도구화하는 전체주의의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이다.

## 2.2 역사철학적 관점과 최후의 인간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보편적인 발전이라는 방향성으로 보는 헤겔의 역사철학적 관점에서는 전체주의를 어떻게 보는가? 헤겔은 역사가 진화하여 최종목표로서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면 종점에 다다른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국가를 가진 나라만이 역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어떻게 국가 속에서 자유와 필연의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역사의 종언을 자유와 평등의 실현 과정이란 관점에서 고대는 한 사람을 위한 노예의 사회, 중국이나 인도 등은 정신이 자유롭지 못한 단계, 그리스와 로마는 소수만이 자유를 누리는 세계였으나, 게르만 세계는 종교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세계로 보았다. 그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세계사적 전환기로 보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정신의 본성을 회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발전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마르크스와 후쿠야마는 헤겔의 보편사적 역사 해석을 좌우적 관점에서 주장한다. 후쿠야마는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건설이라는 해석과는 달리 자유주의 이념의 보편적 실현을 역사의 종언으로 보았다. 후쿠야마는 세습적인 군주제나 파시즘,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소련 공산주의가 1990년 붕괴하기 바로 직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였다[3]. 그의 선언이 실현되었다면 이와 같은 전체주의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시 그는 인류의 장애물로 민족이나 종교를

들었다. 이후 아시아 경제위기, 러시아의 개혁 지체, 그리고 9.11 테러 등의 위협으로 1999년 자신의 가설은 옳았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오류로 인정하였다[4]. 추가적으로 현재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시도되는 디지털 전체주의 독재체제[5]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도 존재한다. 본 논문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후쿠야마의 가설을 전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다만 역사의 종언에서 주장한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쿠야마는 니체가 언급한 최후의 인간이라는 용어를 빌렸다. 그는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는 헤겔의 해석자라고 할 수 있는 코제브(Kojève)의 주장을 빌어 절대정신을 가지고 자기부정을 통하여 고결한 품성을 지닌 이상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니체는 위대하고 열정적인 인간을 초인(Übermensch, 위버멘쉬)으로 보고, 반대되는 최후의 인간(Letzter Mensch, 레츠터 멘슈)은 창조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부정적 인간으로 보았다[6]. 본 논문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지 못하는 개인의 모습을 니체가 우려한 최후의 인간이라는 주장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니체는 초인을 거부하는 대중을 등장시켰다. 개인과 대중은 안위와 평화에 젖어 법치를 무시하고, 나약하고 한심하며 개인의 삶을 퇴폐적이고 저질스럽게 변질시킨다고 보았다.

## 2.3 사회계약론의 붕괴

근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계약론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이 갖는 주체성이 부정된다. 홉스, 로크 및 루소 등은 현대적 민주 국가의 형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홉스의 사상은 유럽 정치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기존의 도덕적, 종교적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만인과 만인의 투쟁상태에서의 공포로부터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사회나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독특한 이론으로 이후 민주주의 사상의 밑거름이 되었다. 로크는 홉스가 정당화한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근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인간성을 백지설에 따른 이성적 존재로 보고, 특히 재산권을 추구하면서 분쟁을 야기하는 자연상태를 가정하였다. 로크는 재산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국민의 소유를 국가가 보장하되 처벌권이나 대표권은 국가에 위임하여 준다. 그리고 루소는 “일반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계약론과 사유재산이 불평등의 기원이 된다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주장한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과 소유권이 설정이 되고, 다

음은 이를 위한 권력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단계를 거치며 결국 이를 영속화하기 위한 자의적, 독단적 권력과 독재가 출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직접민주제의 국가를 상정하고 주권은 양도할 수 없기에 저항권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의 성립을 설명하려던 시도가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는 별도의 주제이나 개인과 사회가 자연이나 신에 의해 운명지워진 존재가 아님을 밝혔다는데 이의가 있다[7]. 사회계약론의 가설은 사회계약의 주체로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다. 루소의 경고처럼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이 도구가 될 뿐이다.

### 2.4 기존 연구와의 차이 비교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가설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와 단계를 중심으로 <그림 2>와 같은 요소들에 유의하고자 한다.

	previous	present
Purpose	Ideological, philosophical,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democratic state into a totalitarian state
Totalitarian regime	Annihilating human nature	
Last man	Not mentioned	The starting point of the totalitarian regime
Social contract theory	Not mentioned	Contradictor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Fig. 2. Comparison with existing research

## 3. 가설 모형의 모색

가설을 모색하는 근거와 배경은 2장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최후의 인간이 대중으로 타락하면서 사회계약론이 붕괴되며, 독재자의 선동과 조작이 동시적, 혹은 단계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전체주의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헤겔과 후쿠야마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각과 자유와 평등의 세계화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는 <그림 3>과 같이 근현대 이후 인류가 겪어온 이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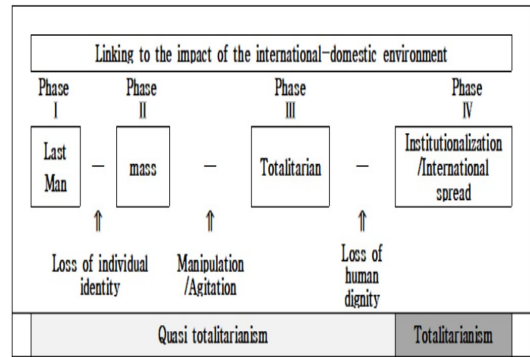


Fig. 3. Model of the totalitarian process of a democratic state

방향과 충돌이 빚어지는 국내적 및 국제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의 상실로부터 시작되어 대중의 절망과 전체주의자의 출현으로 연계 내지는 단계화 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개인은 역사의 종언에서 가정하는 주체적 개인과는 달리 니체가 우려한 최후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함몰된다. 대중은 절망과 함께 맹목적인 독재를 선택한다. 개인, 대중, 그리고 전체주의자의 작용은 동시적이거나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전체주의자에 의한 조작과 선동, 여론의 장악은 지속적이다. 유사전체주의는 전체주의로 제도화되면서 인간성의 말살로 완성된다. 전체주의의 제도화는 국제적인 연계와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 3.1 1단계 개인의 주체성 상실과 대중화

근대에 출현한 개인은 사회와 국가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역사의 종언을 맞이한다. 그러나 니체가 조롱한 최후의 인간, 그리고 대중이라는 정체성으로 함몰된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펼치며 평등주의와 정치 전문성이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포폴리즘에 빠진다는 점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의도와 다를지 모르나 철인에 의한 지배의 정당화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고도 하겠다.

근대 초기 대중에 대한 논란은 홉스(Thomas Hobbes)와 스피노자(Benedict de Spinoza)가 불을 지폈다. 전자는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군중으로, 후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대신에 국가, 정치, 법적 제도 등의 구성이 그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8]. 홉스의 부정적 의미와 스피노자가 언급한 시민이라는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그리고 바버(Barber)는 대중은 권력을 부여받기만 하면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이기적인 야망을 추구하

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등 스스로를 지배하지 않는 명목적 자유인일 뿐이다[9]고 하였다. 특히 아렌트는 이러한 대중이 토양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3.2 2단계 대중의 정서와 독재에 대한 복종

근대에 들어서 개인은 이전의 혈연과 지연에 의한 유대에서 벗어나 기존의 권위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유와 개성을 즐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자유는 거꾸로 개인에게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불안과 공포를 동시에 주면서, 역설적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에 함몰되게 만들었다. 19세기 말 심리학자 르봉(Gustave Le Bon)은 개인이 '이성'보다 '정서'를 택하는 대중에 휩쓸리는 원인을 연구하였다. 군중 속의 개인은 완전히 다르며, 개성을 잃고, 쉽게 흥분하고 무책임하고 난폭해 질 수 있다. 그들은 진실을 갈망하지 않고, 부추겨 주면 오류라도 지배자로 받들지만, 환상을 깨려 들면 희생의 제물로 삼는다[10]. 그는 당시 공산주의의 부상을 이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닌 신앙으로 진단하였다. 지난 세기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독일인의 95%가 나치즘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왜 인간이 전체주의의 매력에 빠지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프롬(Erich Fromm)은 1930~40년대의 유럽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유를 버리는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노동자 대중은 저항 보다는 나치즘의 권위주의에 복종할 것을 택했다. 종교개혁 당시 불안으로부터 루터(M. Luther)가 제시했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따랐던 전통에서 그 연원을 밝혔다.

대중은 절망하면서 기꺼이 전체주의의 유혹에 빠져 들 수 있다. 토크빌은 19세기에 미국의 미래 민주주의에서의 잠재적 위협 요소와 위험성을 언급하였다[11]. 아렌트는 대중사회에서 원자화된 개인은 폭민(mob)이라는 대중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이후 포퍼(Karl Popper)는 전체주의의 매력을 선택과 책임에 대해 인간이 갖는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약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갈파하였다. 특히 호퍼(Eric Hoffer)는 대중운동은 초석을 놓는 지식인, 광신자, 그리고 굳건히 다지는 실천적 행동가로 이뤄진다고 하였다. 특히 광신자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주의 체제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토크빌의 염려 이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주의적 고립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전체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은 견고해 보인다.

### 3.3 3단계 대중과 전체주의자

르포르(Claude Lefort)는 20세기 후반 동유럽 독재 체제에서 자행된 전체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테러의 시대와 결부하여 전체주의를 진단하였다[12]. 전체주의자는 칸트로비츠(Ernst Kantorowicz)의 "왕의 두 몸"이라는 이론 중 하나인 상징적 권력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한다[13]. 전체주의 체제의 목적은 구성 요소가 개인이 아니며 동일한 목표, 동일한 의견 및 동일한 관행에 의해 완전히 정의된 단일하고 폐쇄된 사회이다.

대중과 전체주의자는 동체로 작동한다. 대중은 전체주의자에게 의지하고 전체주의자는 대중을 도구로 활용한다. 프랑스의 수정주의 역사학자인 푸레(Francois Furet)는 "전체주의는 폭력과 계획을 통해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상가들의 사고로부터 시작된다."고 갈파하였다[14].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렛(Daniel Ziblatt)은 트럼프 행정부를 전체주의로 비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규범 거부, 정치 경쟁자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그리고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성향 등 4가지 신호를 주장했다[15].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논쟁적이나, 전체주의에 대한 기준으로는 합리적이다. 독재자들은 현실세계에서 대중에게 이러한 믿음을 평등과 복지 등의 언어로 과대 포장하면서 정부를 극대화하는 등의 치명적 자만을 과시하며 전체주의의 무덤으로 대중을 몰고 간다.

### 3.4 4단계 여론 선동 및 조작, 제도화/확산

전체주의자는 치명적 자만에 빠져서 대중을 도구화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며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독재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대중에 대한 선동과 조작은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상적이다. 냉전이란 용어를 유행시킨 리프먼(Walter Lippman)은 여론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론에 대해서 실제 현실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는 이미 고정관념적 시각을 갖고 해석한다는 비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일반 국민은 민주적인 권력을 자신이 행사한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제한에 처한다[16]. 르봉은 군중은 이성보다 정서에 따른다고 하였다[17]. 타르드(Jean Gabriel Tarde)는 저널리스트에 의한 선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18].

양차 세계대전의 파시즘과 중·소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선동과 조작이 이뤄지는지는 충분히 경험하였다. 히틀러는 선동과 조작, 독재권력의 수립, 그리고 전체주

의를 실현한 전형적인 모델이었다. 리프먼도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중은 고정관념의 이미지에 좌우되는 이른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오염되기에 이를 조작하는 대중매체를 강력히 경고하였다[19]. 최근 여러 나라 선거에서 사전/우편투표 및 디지털 조작 사례들이 다수 식별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럽고 새로운 추세이다.

### 3.5 양차 세계대전 전후와 현대의 전체주의

본 논문에서는 양차 세계대전 전후와 현대의 전체주의화 현상에 대한 차이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현대 민주주의의 위협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용어는 포퓰리즘이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몽크(Y. Mounk)는 포퓰리즘을 ‘반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간결히 정의하였다. 개념적으로 포퓰리즘은 기득권이나 엘리트 세력과는 별도로 대중 인민의 정치적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현대에서는 선전과 선동 과정에서 부정적 의미의 과도한 복지나 대중영합주의적인 수단이 회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 몽크는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세 원인으로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경제침체,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주디스(John B. Judis)는 포퓰리즘과 세계화를 연구하면서 과거에 비해 현대는 민주주의의 파괴가 선거제도 내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과거는 제국주의와 관련되었으나 현대는 국가주의적 성격,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현실적 문제로 등장한다는 점 등이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변명은 틀렸고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미세스(Ludwig von Mises)의 주장에 반하는 현상이다.

냉전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한 합법적 절차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무력이 동반되는 쿠데타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의회나 법원의 승인, 선거의 조작을 통해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극우 세력으로 몰리며, 대중은 민주주의가 붕괴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또한 국제정치관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 이후 20-3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글로벌주의적 패권을 추구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선택적 개입주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21]. 미중 패권전쟁과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경제나 사회적 불평등이 논란이 되는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로의 위

험에 취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차베스 정권과 볼리바르 혁명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한 여성은 “민주주의가 감염되었다. 차베스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항생제다[22].”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임기제한 철폐와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으며 4선 대통령이 되었고 암으로 죽자 그 자리를 또다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후계자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살았다면 영구집권을 하려 했을 것이다. 그는 볼리바르(Bolívar) 혁명의 지도자로서 사회주의 추진과 라틴 아메리카 통합을 지향하고 반미주의를 외쳤다. 포퓰리즘적 정책과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경제 실정을 맞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체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전체주의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4>는 앞에서 제시한 <그림 3>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 모델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볼리바르 혁명에 따른 전체주의화 과정의 사례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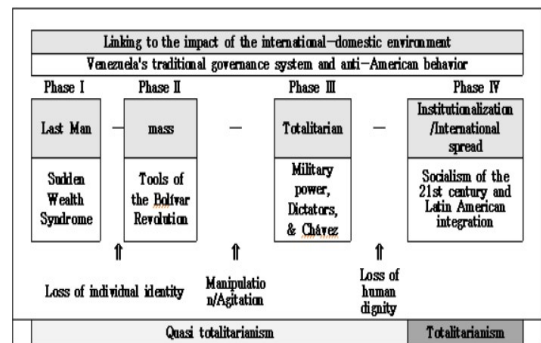


Fig. 4. Venezuela's model of a process toward a totalitarian state

### 4.1 1단계 최후의 인간으로서 베네수엘라국민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과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는가? 2003년 차베스 정권이 지향하는 사회경제체제와 차베스 지지자들을 포함한 조사자료는 예상과 달리 국민들의 82.8%가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한다고 나왔다. 2011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51%가 10점 만점 중 8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23]. 베네수엘라 국민 대부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받아들이며 역사의 종언의 대열에 설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베스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구조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4).

그러나 그들이 후쿠야마가 언급한 최후의 인간으로서 역사의 종언을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베네수엘라는 독립 이후 기존의 탐욕스런 지배층과 무기력한 대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베네수엘라는 독립하면서 천연자원인 석유의 축복을 받은 나라였다. 당시 라틴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차베스도 집권 이전에 기존 집권세력을 '부패한 과두지배층'으로 비난하였다. 석유부국인 베네수엘라에서 빈곤이 팽배한 원인은 구조적으로 계승된 부패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부패는 19세기 독립 후 구축된 정치군사독재자 카우디요(caudillo)로부터 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1958년 푼토포호(Punto Fijo) 협약에서 성립된 체제를 통하여 양당 민주체제가 작동되면서 이후 40년간 과두체제를 거쳤다. 19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모색할 때 차베스는 이를 비판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질서를 거부하면서 등장하였다. 석유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서 차베스의 반미적 행보는 저항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이후 석유 개발로 기존의 농촌 과두지배층에서 “기생적 부르주아(rentier bourgeoisie)”가 새로운 사회 지배세력으로 부각되면서 민주적 요구가 분출되었으나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모든 권력이 당의 핵심인물들인 소위 꼬고요스(Cogollos: 배추의 속을 뜻함)들에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했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 쇼크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대중의 기대와 환상은 부풀려졌다. 횡재는 생산적인 재투자보다는 분배로 남용되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삶의 수준이 두 배로 뛰면서 “부자 의식”을 갖게 되며 이른바 졸부증후군에 빠져버렸다고 하겠다.

과도한 국내 수요와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지며 분배와 팽창정책의 한계를 초래하면서 개혁이 필요하였으나 포퓰리즘 정책을 되돌리는 정부는 나올 수 없었다. 1998년 유가 하락으로 경제 위기는 증폭되었다. 차베스는 반신자유주의와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등장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도 독립 이후 오랜 기간의 독재 습성과 이후 시장 개혁의 실패 속에서 역사의 종언을 감당할 정체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외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졸부증

후군에 찌든 베네수엘라 국민은 니체가 언급한 나태하고 부정적인 최후의 인간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다.

#### 4.2 2단계 대중의 절망과 독재에 대한 복종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 이전과 이후의 대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베스 이전의 베네수엘라 국민은 오랜 기간 정치군사 독재체제에 길들여 있는 대중이었다. 그리고 차베스 집권 이후에는 차베스가 의도한 볼리바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대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갖을 수 없는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 고메스(Juan Gomez)의 강압적 군부독재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정정 속에서 살면서, 심지어 1999년 차베스가 집권한 이후 헌법 개정으로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까지도 열려졌다. 이처럼 베네수엘라 국민은 독립 이후 오랜 독재체제의 반복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대중으로 존재하였다. 1945년과 1958년의 민주화 과정에서조차도 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위 “트리에니오(Trienio)”라 불리는 민주화 시기의 출발도 베탕쿠르를 중심으로 한 AD당 지도부와 메니나 군사정부에 반대하여 쿠데타 음모를 꾸민 청년장교 그룹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차베스는 집권 후 대중을 자신의 볼리바르 혁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의 혁명성과들 중에서 중요한 사실은 2002년부터 시도된 대중권력의 출현이다. 대중권력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주민평의회(Consejos Comunales)였다. 이미 1980년대부터 조직화되었던 ‘동네공동체’에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여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동시에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차베스 혁명 이념의 구체적인 수단도 바로 주민평의회였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개인의 주체성을 상실한 대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며 정치군사적 독재체제에 길들여져 있다가, 차베스의 등장 이후에는 볼리바르 혁명의 도구로서 기능하였을 뿐이다.

#### 4.3 3단계 볼리바르 혁명을 꿈꾸는 전체주의자

르포르르는 전체주의자는 과거 왕이 가진 상징적 권력에 영원히 군림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차베스는 대중의 우상이 되고자 하였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수감생활도 한 혁명가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자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의 독립운동가 볼리바르, 교육

운동가 로드리게스, 그리고 농민운동가 사모라를 연구한 민족운동가였다. 그는 기득권층의 과두체제를 약화시켜야 베네수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민을 각성시켜 정치세력화할 필요가 있음을 일찍부터 통감했다고 한다.

차베스는 집권 과정에서 선동과 부정선거 등을 통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차베스는 4번이나 대통령으로서 집권하였고 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후계자 마두로에게 자신이 구축한 전체주의 체제를 물려주었다. 차베스의 집권 과정을 “민주적 전체주의(democratic autocracy)”로 규정하는 분석이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후 교묘하게 선동과 부정선거 등 비민주적 방법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차베스는 1999년 개정 헌법이나 이후 21세기 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견제와 균형 기능의 약화, 대통령의 권력 집중과 같은 전체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차베스는 소위 ‘페트로 포플리즘’이라는 값싼 석유 사회주의로 베네수엘라 국민의 우상과 독재자가 되려 하였다. 국가통제, 국유화, 삼권분립 와해 등을 통해서 전형적인 독재권력을 구축해 나갔다. 차베스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평등 교육화를 최초로 진행하였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상주택, 기초 식량을 보급하였다. 그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이며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체주의자의 길이었다.

#### 4.4 4단계 전체주의의 제도화

1999년 출범한 제헌의회는 고유의 헌법 업무를 벗어나 국가가 다양한 부문에 개입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의회의 권한도 재정분야 외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사법부 판사들을 부패로 해임하고 주요 직책에 그의 지지자를 임명하였다. 이후 헌법을 재개정하면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의회의 우위에 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권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였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빚었다. 언론의 자유도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항목을 통해서 검열과 공포를 야기했다. 군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군 병력에 의한 가정의 무단 침입이나 약탈 혐의자를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또한 친정부 볼리바르 노동자 전선(FBT)을 통하여 사회 조직을 장악하며 반대 세력을 용인하지 않았다.

차베스 정권의 여론 선동과 조작, 부정선거 등을 통한 독재의 제도화는 최초 합법적 절차의 형태를 밟는 민주적 전체주의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민주적 선거와 언론의 자유 등을 표방하는 신헌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사전체주의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는 대내외적인 저항과 난관 속에서 어떻게 전체주의를 유지 및 제도화해 나가려 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5. 결론 및 고찰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전체주의화 내지는 파시스트라는 논란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가? 거의 두 세기 전에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감탄하면서도 민주사회는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여 선출적 독재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며 민주주의의 패러독스를 경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해 보고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분석해 보았다. 후쿠야마가 펼친 주장의 틀은 가설로 받아들였으나, 그가 주장한 최후의 인간 보다는 니체가 우려한 최후의 인간을 전체주의화 과정의 출발점으로 분석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의 가설로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 속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과 대중화, 그리고 전체주의자라는 세 요소의 연계적 작용을 통하여 제도화되고 있음을 분석해 보았다.

베네수엘라의 전체주의화 과정의 모델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인권보고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가에서 기록된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문화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를 중단하고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례 없는 베네수엘라 이주민과 난민의 유출이 계속 될 것이며 국민들의 생활 조건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특히 2016년 이후, 정부는 차베스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 억압 및 구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실행하였고, 일련의 법률, 정책 및 관행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해체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주변 8개국과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목격자들을 포함한 558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뤄졌었다[25].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은 전형적인 전체주의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개인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보편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호하면서도 오랜 독재체제와 차베스 이후 볼리바르 혁명의 도구로서 대중의 한계에 머무르며 “부자의식”에 찌든 최후의 인간에 머무르며 전체주의의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모색하면서 추가적으로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연구하고 통찰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쿠야마 스스로도 오류로 인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빠지지 않는 포퓰리즘, 민주적 전체주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와 전 세계적인 연계와 확산 위기,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위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추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락한 최후의 인간이 전체주의로 빠져 드는 원인을 선진국, 개도국 및 후진국 유형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선과 중국과의 패권전쟁 과정에서도 전체주의의 국제적인 유대와 연계의 징후들이 일부 관측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이처럼 국제적인 환경이나 국내 및 개인의 분석수준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깊은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체주의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D. R. Villa, *The Cambridge Companion to Hannah Arendt*, pp.2-3,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DOI: <http://dx.doi.org/10.1017/CCOL0521641985>
  - [2] C. J. Friedrich,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p.3-27,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3]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89;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xi-xii, Free Press, 1992.
  - [4] F. Fukuyama, “Second Thoughts: the last man in a Bottl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9; F.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pp.188-190,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 [5] P. Mozur, “China moves towards ‘digital totalitarian state’ as surveillance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Dec. 18, 2019),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china-technology-surveillance-network-totalitarian-states-py-a9251971.html> (accessed Oct. 18, 2020)
  - [6] F. Nietzsche, J. J. Kim trans., *Also sprach Zarathustra*, pp.5,20, Olje, 2012.
  - [7] B. J. Ko, “The historical meaning of social contract theory : Comparison of social contract theory of Hobbes, Locke, Rousseau”, *Law & Policy Review*, Vol.20, No.1, pp.55-82, 2014. DOI: <http://dx.doi.org/10.36727/jilpr.20.1.201403.003>
  - [8] W. Koh, “Articles : What is the Mass? -The Political Ideas of Hobbes and Spinoza-,”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16, pp.46-47, 2006. DOI: <http://dx.doi.org/10.36727/jilpr.20.1.201403.003>
  - [9] B. Barber, *An Aristocracy of Everyone*, pp.234-235,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DOI: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5091540.001.0001>
  - [10] G. Le Bon, *The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La Psychologie des foules)*, The Macmillan, 1896, pp.1-61. DOI: <http://dx.doi.org/10.1037/10878-000>
  - [11] A.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Saunders and Otley, 1835; T. Y. Hong, “Alexis de Tocqueville and Paradox of Democracy,”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35, No.3, pp.67-83, 2001. DOI: <http://dx.doi.org/10.7208/chicago/9780226924564.001.0001>
  - [12] C. Lefort, “The Question of Democracy,”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trans. D. Mace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17.
  - [13] E. H. Kantorowicz, *The King's Two Bodies: A Study in Mediaeval Political The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DOI: <http://dx.doi.org/10.1515/9781400880782>
  - [14] F. Finchelstein, *From Fascism to Populism in History* p.47,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DOI: <http://dx.doi.org/10.1525/9780520968042>
  - [15] S. Levitsky, D. Ziblatt, S. Y. Park trans., *How Democracies Die*, p.85, Across, 2018.
  - [16] W. Lippman, *Public Opinion*, Harcourt, Brace & Co., 1957. DOI: <http://dx.doi.org/10.1037/14847-000>
- W. Lippman, *The Phantom Public*, Macmillan Company, 2017.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133812>

- [17] G. LeBon, *The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 pp.54-56, The Macmillan Co., 1908.  
DOI: <http://dx.doi.org/10.1037/10878-000>
- [18] J. G. Tarde, *L'opinion et la foule*, pp.34-74,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 [19] W. Lippmann, J. H. Oh trans., *Public Opinion*, Dongsuhbook, 2011.
- [20] H. J. Kim, J. M. Seo, "Populism, Political Style, Political Community, Technical Development Of Media, Cultural Analysi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1, No.4, pp.49-74, 2017.  
DOI: <http://dx.doi.org/10.18854/kpsr.2017.51.4.003>
- [21] H. H. Yoon, "Security Dilemma of the Park Jung-hee - Carter & Moon Jae-in - Trump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Paradigm and Presidential Leadership,"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25, No.1, pp.39-43, 202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4530>
- [22] B. Jones, *Hugo! : Hugo Chávez Story from Mud Hut to Perpetual Revolution*, p.225, Steerforth Press, 2007.
- [23] S. Levitsky, D. Ziblatt, S. Y. Park trans., *How Democracies Die*, pp.11-12, Across, 2018.
- [24] D. M. Choi, "Chávez regime and the politics of instability in Venezuela," *ECONOMY AND SOCIETY* pp.198-209, Apr. 201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lId=ART001314760>
- [25] UN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in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UN, pp.1-16, 24 June - 12 July 2019.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4788&LangID=E> (accessed Nov. 19, 2020)

---

윤 형 호(Hyeong-Ho Yoon)

[정회원]



- 1991년 1월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군사전략석사)
- 2010년 2월 : 국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박사)
- 2006년 11월 ~ 2011년 1월 : 국방대학교 순환직교수
- 2011년 8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정치, 국가안보, 한미동맹